



치유체험농업 '웰니스팜 광양스토리' 상표 출원

치유공방·마을 등 10개류 181개 상품 지정·경쟁력 강화 기대

광양시는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매실 등을 이용한 치유체험농업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웰니스팜 광양스토리' 상표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이 합쳐진 말로 '건강한 삶'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뜻한다.

'웰니스팜스토리 광양스토리'는 '더욱더 오래, 더욱더 행복하게 사는 법, 대한민국 광양이라는 스토리로 소리(音), 기(氣), 빛(光), 맛(味), 향(香), 흙(土) 6가지를 주제로 삶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치유 농업 프로그램 개발에 운영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7개 치유농업 치유농장에서 지역농산물 등을 이용해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웰니스팜스토리 원데이스쿨을 운영했다.

이번에 상표 출원한 '웰니스팜 광양스토리'는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중 치유공방·마을 등을 중심으로 천연염료에서부터 한방차 전문카페까지 10개류 181개 상품으로 지정됐다.

또 각종 치유제품과 배너·현수막·명함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시는 '웰니스팜 광양스토리' 상표를 치유체험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판촉용 스티커와 인쇄물 등에 활용에 '웰니스팜스토리'를 적극 알릴 나갈 계획이다.

이은희 생활지원팀장은 "이번 상표 출원으로 우리시의 가치를 향상시켜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출원한 상표를 적극 이용해 광양만의 특별함을 널리 알리고 경쟁력 있는 웰니스 관광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종권 기자

순천 문화의 거리 전신주 없는 아름다운 거리 재탄생

도심 속 실개천 조성·생태와 문화 조화로움 곁들여



순천시 향동 문화의 거리 은행나무 가로수길 일대가 전신주와 화물차로 붐비는 도로에서 벗어나, 전신주 없는 아름다운 거리로 재탄생했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중앙로(삼성생명)에서 공마당길 460m 구간에 대해 지난해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4월부터 거미줄 같이 얽혀 있는 전신주를 땅속에 묻고 전신주를 없애는 작업을 실시했다.

한전·통신업체 분담방식으로 추진한 가공선로 지중화사업과 함께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우?우수 분류화 사업과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동시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였다는 평가이다.

해당구간은 순천시 대표축제인 푸드&아트 페스티벌을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가 열려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구간이었지만 전신주와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약전후에는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 재난위험 대비를 위한 전신지중화사업이 꼭 필요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문화의 거리 은행나무 가로수길 일대가 전신주 없는 아름다운 거리로 재탄생했다"며, "이제부터 전신주 없는 아름다운 거리로 재탄생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화의 거리에는 낭만적인 클래식 음악과 난봉산 참샘 계곡 맑은 물이 흐르는 실개천이 조성돼 특색 있는 보행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충훈 시장은 "문화의 거리 은행나무 가로수길 일대가 전신주 없는 아름다운 거리로 재탄생했다"고 말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화순군, 아열대 작물 육성 '박차'

차요테·오코라·암빈·커피 등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화순군이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대체작물 발굴과 경쟁력 있는 작물 육성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작물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4일 화순군에 따르면 한반도의 아열대화로 농산물 재배지역 북방 한계선이 꾸준히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농가 특성 소득작물 발굴·육성을 위해 올해 아열대 작물인 암빈 0.4ha, 차요테 0.2ha, 오코라 0.2ha, 커피 0.1ha 규모로 실증 재배를 추진했다.

암빈은 올해 3년 차로 직파 실증 재배를 통해 0.1ha 당 모종 이용 대비 종묘비를 77% 절감했다.

오코라는 2년차 실증으로 직파 재

배를 통해 종묘비를 68%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또한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목 발굴 도비 사업으로 추진한 커피 시범사업은 농가 레스토랑(오코25)과 연계해 비닐하우스 등 커피 생산 기반을 지원했다.

특히 커피를 활용해 농장 내에서 시음, 가공, 교육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6차 산업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은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아열대 작물 시범사업 평가회를 열어 1년 동안 작물을 재배하면서 경험한 재배기술 및 판매 노하우 등 정보를 공유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구례군,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농촌학교 성료

구례군은 새내기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2017 농촌학교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부안군 대명리조트에서 구례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농촌학교는 귀농귀촌인들의 농업과 농촌 정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후 지역 내 성공한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첫째 날은 '성공적인 귀농귀촌 생활', '지역주민과의 소통법', '마을리더 역량강화'를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둘째 날에는 '리더의 자기관리와 행복한 마을 만들기' 강연 후 김제시에 위치한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을 방문하는 현장학습으로 이어졌다.

군 농업기술센터 박노진 소장은 "이번 농촌학교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농업에 대한 가치를 확립하고 농촌의 정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며, "귀농귀촌인이 지역의 리더로 발돋움해 행복한 마을 만들기의 핵심역량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농부취재본부장

광양시, 65세 이상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교육 가져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신속한 대처능력 학습 기대



광양시가 11월 한 달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을 맞아 안전사고에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몸을 지키는 대처능력과 안전사고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 추진했다.

시는 당초 계획된 지난 11월 8일

과 10일에 옥룡민방위실전문훈련센터와 중앙노인복지관에서 진행했으나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9일에 추가로 교육을 실시했다.

대한안전협회 3명의 강사를 초청해 진행된 이날 교육은 전문성을 갖춘 강사의 협조 하에 이론보다는 실습위주의 체험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에 대한 예방방법과 심장질환·저체온·동상·화상 예방법 등 겨울철 기본 안전수칙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직접 낙상 예방 스트레칭을 따라 해보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 시 부목과 붕대 사

용방법, 전기 화상 소독법, 찰과상 드레싱법 등을 직접 체험해 보는 교육으로 이뤄져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사고 발생시에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우성 안전기획팀장은 "시에서도 고령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인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종권 기자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